

2022.7.29-8.30

www.pctac.or.kr

**멀리보다:
백남준의 TV**

2022.7.29-8.30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멀리보다:
백남준의 TV**

백남준 Nam June Paik

백남준(1932-2006)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과 독일에서 음악, 철학, 미술사를 공부하고 독일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로서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가 소통하는 예술을 만들어냈고,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백남준은 1963년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TV 모니터를 캔버스처럼 활용하여 소리를 이미지로 바꾸거나 송신기로 전자 파동을 화면에 그려내는 움직이는 회화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비디오아트'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1984년 인공위성 프로젝트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2천5백만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한 그는, 1988년에 1,003대의 TV모니터를 사용한 <다다익선>을 만들었다. 1990년대에는 47채널 비디오를 313개의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일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와 같은 대형 TV 설치 작업을 제작했다. 1990년대 제작된 텔레비전을 매체로 사용한 작품은 예술과 기술, 예술과 일상의 융합을 실천했던 백남준의 예술관이 담겨있다. 그는 TV와 비디오, 미디어와 기술을 조각, 페인팅, 드로잉, 퍼포먼스, 설치 등 미술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접목해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백남준이 비디오아트, 나아가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텔레비전을 예술 창작의 매체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니라, 동시대 기술 문화를 예술의 영역에서 인식했고 나아가 미래예술의 방향을 예견했다는 점이다.

주최 포천문화재단
주관 백남준문화재단
협력 아트링크, 아트마스터
전시운영 김지연
전시기획 김정연
코디네이터 유지현
사진 임영균
디자인 지상이기

멀리 보다 : 백남준의 TV

“‘예술과 기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 표현방식인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백남준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불렀던 때가 있다. 인터넷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이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거나 혹은 바보가 된다고 걱정하는 어른들의 잔소리를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게 텔레비전은 가보지 못한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극장이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공급하는 움직이는 백과사전이기도 했다. 동물원에 없는 나무늘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고, 육식동물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 기이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는지 목격할 수 있었고(1983),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한 범지구적인 캠페인 '위아더월드 We Are The World'도 벌어졌다(1985). 심지어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해 뉴욕에서 따른 삼페인이 파리에 있는 잔에 담기는 것도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그 해가 1984년이였다.

'텔레비전 Television'은 '멀리, 원격의' 접두사 tele와 '시선, 시야'의 의미를 지닌 'visio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전자신호를 수신하여 움직이는 이미지와 소리를 송출하는 수신용 전자기기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수신자는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의 정보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전달 방식 때문에 텔레비전의 정치적인 속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 경험과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전후 세대의 기억과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기록하고 구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 기술이다.

이러한 텔레비전은 1960년 초반, 미국의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백남준은 1963년 독일에서 열린 자신의 첫 개인전에 13대의 텔레비전을 등장시켰다. 이 점은 작가가 당대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백남준이 비디오아트, 나아가 미디어아트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텔레비전을 예술 창작의 매체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니라, 동시대 기술문화를 예술의 영역에서 인식했고 나아가 미래 예술의 방향을 예견했다는 점이다.

전시 <멀리 보다: 백남준의 TV>는 텔레비전을 매체와 모티브로 사용한 백남준의 작품 17점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1990년대에 제작된 전시 작품들은 텔레비전을 활용해 예술과 기술, 예술과 일상의 융합을 실천했던 백남준의 예술관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시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백남준의 텔레비전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넘어 멀리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그의 사유의 흐름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1

심 心

27×24cm (양면)
 두방지(시키시) 위에 스크린프린트(Ed. 56/75)
 Screen print (Ed. 56/75)

한자 마음심 心을 조형화한 이 작품은 두 작품을 붙여 앞뒤, 양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모두 4개의 획으로 이루어진 마음 심자는 본래 인간의 심장을 본떠 만든 한자인데 백남준은 4개의 획 가운데 두 획은 앞면에 두고, 나머지 두 획은 뒷면으로 보냈다.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었던 백남준은 마음을 표상하는 글자를 해체하고 다른 공간에 놓은 것이다. 결국 시공간을 초월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심장이 완성될 수 있음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2 3

비디오 상들리에 No. 4 Video Chandelier No. 4

150×150cm
 1990
 비디오 조각, 혼합매체
 Mixed media

비디오 상들리에 X Video Chandelier X

130×120cm
 1991
 비디오 조각, 혼합매체
 Mixed media



<비디오 상들리에> 연작은 1989년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백남준은 천장에 매다는 형식의 <비디오 상들리에>를 여러 점 제작했고 그 가운데 두 점이 이번 전시에 소개된다. 본래 상들리에에는 어두운 실내 공간을 밝히는 빛의 원천이자, 시선을 한데 모으는 시각적 중심으로 기능한다. 백남준의 작품에는 상들리에를 이루는 여러 개의 TV 모니터가 현란한 이미지를 방출하고, 빛과 더불어 수많은 정보를 뿜어내며 정보화 시대의 변화하는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화려한 꽃과 잎으로 장식된 이 작품은 삶의 에너지를 담은 동시에 TV 모니터와 자연물이라는 이질적 속성이 결합한 기술문명 시대를 상징화한 것이다. 백남준의 다른 작품 <TV 침대>나 <TV 안경> <TV 브라>와 마찬가지로 낯선 사물들의 결합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일상으로 들여오는 것은 삶과 예술의 궁극적 결합을 추구했던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4

소나타 64

Sonata 64

53×66cm (each)

1996

동판, 석판, 실크스크린 (S.P. 1/2)

Etching, lithography and silkscreen

<소나타 64>는 총 4장의 판화로 이루어졌으며 각 판화에는 16개의 텔레비전 프레임이 등장한다. 개별 프레임에는 백남준의 영상에 등장했던 요셉 보이스, 로리 앤더슨 등의 얼굴, <TV 부처>의 얼굴, 존 케이지의 작품 <4분 33초>의 연주 방법, 그리고 백남준의 가족 모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있다. 함께 등장하는 여러 텍스트들은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구조 등 백남준의 미디어 예술 세계를 이루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총 64개의 개별 프레임들은 몇 개의 악장이 큰 구성을 이루는 소나타처럼 백남준의 예술관과 사유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풀어 놓은 작품이다.



5

말씀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말씀 이후에 빛이 있으리라

Before the Word There was Light,

After the Word There Will be Light

44×60×52cm

1992

텔레비전 상자, 초 (Ed.11/18)

Television casing, candle (Ed.11/18)

<말씀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말씀 이후에 빛이 있으리라>은 TV 케이스 안에 초를 넣고 불을 켜 작품으로 '세상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세상 후에도 빛이 있으리라'라는 성경의 창세기 첫 문장에서 작품 제목을 가져왔다. 세상 'world'를 말 'word'로 대체하여 '말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말 이후에도 빛이 있으리라'라고 표현한 백남준 특유의 언어유희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텔레비전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비우고, 실제 빛을 발산하는 촛불을 놓아 텔레비전 기술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경험을 의도했다. 빛-시간-비디오아트로 확장되는 백남준의 빛의 예술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며, 비디오아트야말로 예술과 소통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예술 형식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 보다 먼저 제작된 <촛불 TV>에 대해 절대 고장 나지 않는 텔레비전을 만들고자 했다는 일화가 남아있기도 하다.



6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 Sonatine for Goldfish

40×49×41cm

1992

텔레비전 상자, 금붕어와 어항(Ed. 3/12)

Television casing,
aquarium and goldfish (Ed. 3/12)

기술을 대표하는 텔레비전과, 실제 금붕어가 살고 있는 어항으로 만들어진 <금붕어를 위한 소나티네>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이다.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서양의 자연관과 달리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고 기술을 인간화할 수 있다고 보았던 백남준의 시각은 다분히 동양적 사유에 근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금붕어는 중국의 고대 설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전설의 황제 현원씨는 동물과 정령을 거울 속에 간직하는 마법을 지녔지만, 만약 동물이 거울을 깨트리면 마법이 풀리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었다. 그 거울을 깨트린 동물이 바로 금붕어이다. 백남준은 영리한 금붕어를 위해 동아시아 신화와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룬 단순한 형태의 소나티네를 만들게 되었다.



7

촛불 - 부처 Candle-Buddha

23.5×19×14cm

1996

혼합매체, 캐스팅 불상(Ed.120)

Mixed media with a casted Buddha (Ed.120)

백남준은 불상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작품을 여러 버전으로 제작했다. 전시되는 <촛불-부처>는 불상과 텔레비전이 마주 보는 기본 형식에 따르지만, 모니터가 없는 작은 <촛불 TV>를 바라보는 불상의 모습이다. 캐스팅으로 제작된 불상은 18세기 도상의 하나로 고요한 명상을 상징하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 종교적인 구도자이며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문명의 상징이자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그 텔레비전 속에는 촛불이 놓여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예술과 기술이 조우하는 예기치 않는 만남을 은유한다. 이러한 낯선 상황이 일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촛불의 명상적인 상징성이 기술과 대비되는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다.



8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 I Never Read Wittgenstein

가변설치

1998

장소특정적 설치, 텔레비전 4대

Site specific Installation with four televisions

4개의 작은 텔레비전 상자로 둘러진 테스트 패턴의 벽은 거대한 텔레비전을 연상시킨다.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세기 철학자로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연과학적 명제이며 그 외의 것, 즉 미적 가치, 종교, 윤리 등은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이후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라는 백남준의 언명은 그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해하는 지점에서 발전해 텔레비전과 기술 문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을 말할 수 있다는 예술관을 드러낸다.



9

드로잉 Drawing

65×85cm (each)

2000

종이 위에 크레용

Crayons on paper

백남준의 <드로잉>은 그의 자유로운 필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1초에 30장씩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술 중심 영상 작업을 주로 했던 그는 삶의 후반기에 이르러 다수의 드로잉과 페인팅을 남겼다. 온전한 색감과 서슴없이 표현된 대상의 모습은 자유로운 힘을 보여주고, 인간과 동물, 산과 강, 꽃과 나무의 모습에는 아이들 같은 순수함이 담겨있다. 이미지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백남준이 그린 아이들의 모습은 그의 순수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 아이 같은 순수함, 모험을 즐기는 장난기 어린 밝음, 긍정적 마음상태를 느낄 수 있는 드로잉은 작가의 내면과 삶을 잘 보여준다.



10

집 없는 부처 Homeless Buddha

125×150×46cm

1991

비디오 조각, 혼합매체

Mixed media

청동으로 만들어진 부처의 두상을 중심으로 세 개의 TV 모니터가 촬영된 부처의 영상을 플레이한다. 부처는 1970년대부터 백남준 작품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는데 이는 고대 역사와 사상이 기술 문명을 통해 현대와 연결되는 접점을 드러내는 장치이자 백남준의 예술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철학적 바탕이기도 하다. <집 없는 부처>는 왕자 시타르타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노숙인이 되어 고행의 길을 떠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 동시에 예술가로서 동서양을 오가며 유명했던 백남준 자신의 삶을 은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빨간 무대 커튼 사이로 등장하는 부처의 모습은 연극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백남준을 떠올리게 한다.



11

프랑스 시계 TV French Clock TV

170×140×200cm

1989

비디오 조각, 혼합매체

Mixed media

<프랑스 시계 TV>는 삼각대 위에 놓인 폐쇄회로 카메라가 벽걸이 패종시계의 추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되는 시계추는 모니터를 통해 보여지는데 그 둥근 모양으로 인해 마치 달을 연상하게 하고, 그 움직임은 마치 달의 궤적을 보여주듯 시간을 시각화한다. "비디오에서는 공간이 시간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백남준의 말처럼 카메라가 케이블을 통해 끊임없이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전자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시각화된 시간의 순환과 흐름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실제 시간과 이미지의 시간 사이에 미세한 시간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시간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는 백남준의 '비선형 시간'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화상 Self Portrait

59.5×62×37cm

1989

혼합매체

Mixed media

<자화상>은 1950년대 제작된 텔레비전 브라운관 속에 백남준과 인연 깊은 오브제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작품이다. 중심에는 청동으로 떠낸 백남준의 데드마스크가 TV 안경을 쓰고 있다. 그 주위로 놓인 피아노와 텔루리온, 역경(譯經)의 상징들, 불상과 자석, 껍질을 벗겨낸 비디오테이프, 시계, 그리고 '혁명'이란 단어도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하다. 백남준이 <춧불 TV>에서 텔레비전의 내부를 비우고 즉설적 사물로 대체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텔레비전의 내부를 비우고 자신의 철학과 사상으로 다시 채워 그의 세계를 담고자 했다. 또한 이 작품은 시인 이상의 자화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일제 수난기의 비애와 고통을 표현적으로 그려낸 이상의 작품처럼 서구의 근대주의에 대항하여 예술과 사유의 혁명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 (로제타석) Key to the Highway (Rosetta Stone)

86×71cm

1995

동판과 실크스크린 (Ed. 29/64)

Itaglio print, silkscreen (Ed. 29/64)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석)>은 백남준의 '전자 초고속도로' 개념이 적용된 작품으로 이집트의 석판인 로제타석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와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 등 세 가지 언어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법령을 새겨놓은 것이다. 백남준은 고대어 해석에 중요한 단서가 된 역사적인 유물, 로제타석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했던 가장 오래된 미디어였음에 착안했다. 작품의 상단에는 작가가 즐겨 그리던 텔레비전, 부처, 자동차, 위성 등의 그림이 상형문자처럼 줄지어 있고, 하단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영상에서 발췌한 스틸 이미지들이 이어진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백남준이 비디오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 플럭서스(Fluxus) 예술운동의 의의, 음악과 시간의 문제, 자신과 교류했던 예술가들과의 관계,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생각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를 섞어 축약적으로 기록한 이 텍스트는 인터넷 정보망 속에서 디지털 코드화되는 언어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14

무제 Untit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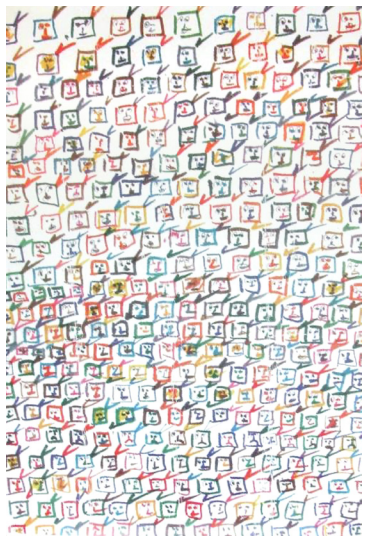
99×70 cm

1990

석판화 (Ed. 17/60)

Lithography (Ed. 17/60)

화면을 빼곡히 채운 TV 얼굴은 백남준의 대표적인 캐릭터이자 트레이드마크이다. 언뜻 보면 수백 개의 TV얼굴이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하나씩 손으로 그린 얼굴은 조금씩 다른 표정을 담고 있다. 형형색색으로 그려진 TV의 크기도 조금씩 다른데 이는 세상을 이루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마냥 간주했고, TV를 통해 모든 인간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계, 즉 텔레비전을 의인화하여 그린 이 작품은 1990년에 열린 시드니비엔날레를 기념하여 제작된 석판화이다.



15

네온 TV-접시=안테나 Neon TV-Dish=Antenna

60×60×25cm

1990

혼합매체

Mixed media

<네온 TV-접시=안테나>는 다른 <네온 TV> 연작들과 마찬가지로 물감이 발라진 바탕 위에 진공관, 소형 TV(Watchman), 토성 모양의 네온이 부착되어 있고 바깥 유리면에는 붉은색과 검은 색의 물감으로 토성을 그려넣은 작품이다. 텔레비전 케이스 위에 부착된 안테나로 인해 TV는 우주선 모양으로 보이는데 텔레비전을 우주 속의 하나의 행성으로 간주하고 그 내부를 비워 또 다른 우주를 구성한 작품이다. 텔레비전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나 타인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하나의 세계로 간주했고 그의 이러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이다.



16

네온 TV-사랑은 10,000마일 Neon TV-Love is 10,000 miles

60×60×25cm

1990

혼합매체

Mixed media

<네온 TV-사랑은 10,000마일>은 작고 둥근 사각형 위로 사람의 얼굴인지, 여자의 토르소인지 명확하지 않은 간단한 드로잉들이 들어 있고 그 위로 남자와 여자의 얼굴 모양을 딴 네온, 각 눈 위치에 소형 TV(Watchman)가 부착된 작품이다. 가장 바깥쪽 유리에는 사랑은 만 마일이라는 의미의 '愛情萬里(애정만리)'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자리 잡은 텔레비전은 서로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지점에 TV가 위치한다.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로 원거리 사랑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작품은 오늘날 온라인으로 사랑을 찾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17

M 200

330×960×50cm

1991

TV 모니터 94개, 비디오사운드 설치

94 TV monitors,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M200>은 94개의 TV 모니터로 이루어진 대형 비디오 설치 작품으로 모차르트, 존 케이지(John Cage),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등 잘 알려진 예술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한다. 백남준은 여러 대의 텔레비전으로 만든 거대한 비디오 벽을 꾸준히 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이자 수많은 동영상 이미지로 구성된 <M200>도 움직이는 벽화가 된다. 작가는 미래의 건축물이 온통 텔레비전으로 뒤덮인 벽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광판이나 미디어파사드 등을 떠올리면 백남준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6개의 TV 모니터가 한 세트가 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개 세트가 4개의 이미지를 현란하게 번주한다. 작품의 사운드는 백남준이 직접 편곡한 것으로 클래식, 팝, 기계음 등 다양한 소리로 만들어졌고, 백남준의 이미지 콜라주와 마찬가지로 음악적 콜라주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 다양한 이미지와 사운드를 콜라주 하여 새로운 예술 탄생을 예언했던 백남준의 예술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포천반월아트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 관람



포천문화재단



백남준문화재단